재외동포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5. 2.(목) 배포 2024. 5. 2.(목)

이기철 재외동포청장, 중국 동포 민생현장 방문

- 동포 간담회·코리아타운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...동포청 주요 정책도 소개

-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...10월 대회 운영 방향 논의

□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후(2023.6.5.) 처음으로 오는 7~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안을 협의하고, 경제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동포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.

□ 첫날인 7일에는 동포 기업인들과 현지의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.

□ 다음날인 8일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제4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0월 전라북도·전주시에서 열리는 '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'의 개최 방향 등을 점검하고, 각국 동포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.

○ 이어 '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'(OK Biz) 사업 설명회를 열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각종 비즈니스 전시회에 바이어·미팅 파트너로 참여할 동포 기업인도 발굴할 계획이다.

□ 같은 날 오후에는 베이징 시내 우리 동포 기업과 왕징 코리아타운을 방문하고, 동포들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한다.

○ 또 한인회, 다문화가족, 한글학교 관계자, 유학생 등 동포 30여 명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어 ‘한국 발전상 알리기’ 등 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동포사회 현안을 듣는다.

□ 이기철 청장은 “베이징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및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, 대한민국과 중국 지역 재외동포의 호혜적 동반성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협력총괄과	책임자	과장직무대행	이정한	032-585-3195
	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장	강모세	032-585-3220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신상철	032-585-3201
	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담당자	사무관	오은아	032-585-3223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